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

-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

김 경 연*

차 례

- | | |
|-------------------------------|----------------------------|
| I. 근대계몽기 여성의 새로운 배치 | IV. 아이의 발견, ‘어머니’라는 국민의 탄생 |
| II. 국민의 외부, 음행(淫行)하는 여성들 | V. 맺음말 |
| III. 일부일처제라는 장치, 가부장(家長)의 아내들 | |

I. 근대계몽기 여성의 새로운 배치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하는데 신문과 소설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한국의 근대계몽기에도 국민 탄생과 신문·소설의 협력관계는 뚜렷이 확인된다. 조선 최초의 서구통인 유길준은 조선 계몽의 교과서인 『서유견문』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기관으로 신문보다 더한 것이 없다”¹⁾라고 강조한

* 부경대학교 강사

1)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2004. 481쪽.

다. 19세기 말 조선의 계몽을 기획한 『미일신문』²⁾ 역시 그 창간호에서 국가·국민이라는 신조어를 여러 차례 불러내고 있다. 예컨대 ‘논설’에는 “국가 문명 진보에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강조는 인용자)을 주기 위해 “국민에 유조흔 말과 실적흔 소문을 만히 그지”할 것이라는 대목이 보이며, ‘광고’에는 “금일에 오인이 국민을 위하야 천신만란을 무릅쓰고”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구절이 발견된다.

주목할 것은 조선의 계몽 주체들이 상상한 이 국민의 범주에는 한동안 여성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초창기 『미일신문』이 국민으로 호출한 것은 “대한 일천이백만 동포”³⁾, 즉 조선의 일천만 남성들이며 신문의 독자로 상정한 대상 역시 “사방 침군자”⁴⁾들이다. 간간이 여성에 관한 새로운 언설이 보이기도 하나,⁵⁾ ‘부녀(婦女)’를 국민의 범주로 포괄하려는 계몽 주체들의 욕망은 그리 강렬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동포로 포획하려는 대상은 남성이며, 계몽 주체의 시선을 비껴간 여성은 여전히 동포의 외부로 머물러 있다. 다음의 기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미일신문』은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1898년 1월 1일부터 약 1년 3개월간 발간한 우리 나라 최초의 일간신문(日刊新聞)이다. 순수한 학생회 회보 성격의 『협성회회보』라는 주간지 형태로 출발했으나, 1898년 4월 9일자부터 『미일신문』로 이름을 고치고 일간(日刊)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정진석, 『한국 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200쪽.)

3) <논설>, 『미일신문』1호, 1898. 1. 1. 『미일신문』 29호에도 ‘일천이백만 동포’라는 구절이 보인다. “(…)만일 대한에도 각식 신문이 방방곡곡이 잇섯으면 벌써 국중에 시비와 분내가 만히 이너날을 거슬 전국에 말홀이는 다만 우리 신문 하나이라 우리가 일천 이백만 동포를 더신희야 우리 의견더로 대강 절명호오니 뜻슬 머물너 보시오(…)” (<논설>, 1898. 5. 20. 강조는 인용자). 이는 단순한 숫자 상의 착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광고>, 『미일신문』 1호, 1898. 1. 1.

5) 예를 들어 『협성회회보』 1호(1898. 1. 1.) <니보>에는 “일전에 정동 교당에서 우리 나라 부녀들이 외국 부녀들과 꺾치 연설을 호는디 미우 유리흔 말들이 만히 잇스니 우리나라 부녀들도 교육만 호면 늬의 나라 부녀들만 못히지 아니홀너라”와 같은 언급이 있다.

여주군 수서기가 관가에 무고하고 지평 백성 하나를 잡아 가둔 후에 그 백성의 처를 빼어다가 첩을 삼고 본부(本夫)는 방송하미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본즉 그 안희가 엮는고로 종적을 치탐하야 본즉 여주군 아모의게 가있다 호는고로 - (중략) - 본군수 남정훈씨가 여주군에 기별하야 그 계집을 찾아다가 관비정속 한지 이틀만에 칩방이 첩으로 치거하야 데리고 살미 그 빅성이 마침내 호소할 곳이 없음으로 방금에 상경하야 법부에 청원한다 하더라 6)

여주군에 살았던 평범한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처’에서 무도한 수서기의 ‘첩’으로, ‘관비’에서 다시 책방의 ‘첩’으로 이동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처에서 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극도 문제적이지만, 『미일신문』주체들이 이 사건을 서사화하는 방식은 더욱 주목된다. 계몽주체들의 시선을 통과한 여주군 사건은 여성의 수난사가 아니라 철저히 남성의 수난사로 기록되고 있다. 계몽의 전위(前衛)들은 그들이 쟁투하고 있는 전근대의 표상인 관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새롭게 국민으로 환대할 남성-동포의 고통을 환기하면서, 여성의 수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함구한다. 여인은 사건의 주체도 기사의 주체도 되지 못한다. 국민이라는 새로운 안전망 내부로 편입하지 못한 여성은 계몽 주체인 남성들에게 ‘처’, ‘첩’, ‘안희’, ‘계집’으로 호명당하는 불안정한 ‘비국민(非國民)’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 변화가 일어난다. ‘현실태’로서의 여성을 응시하던 계몽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가능태’로서의 여성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능태로서의 여성이란 근대적 국가라는 새로운 ‘나라집’에 어울리는 ‘신(新) 여성’이며, 이러한 여성-국민을 구성하기 위해 계몽 기획자들이 전략적으로 동원한 것이 서구에서 수입된 ‘남녀평등론’이다.

하늘이 만물을 내시미 음양과 즈옹이 잇서 서로 조금도 어긋여짐이

6) <잡보>, 『미일신문』 60호. 1898. 6. 17. 이후 인용문 상의 강조는 모두 인용자.

업서야 순환하는 이치에 뿔뿔히지라 사름은 남녀 두길에 난호왓스나 남녀 상합 하여야 싱육 하고 번성 하니 그 덕이 엇지 적으리오 (...) 지금 세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남녀의 권리가 평등한 나라는 다 기명하고 부강하거나와 남녀권이 평등이 못 되고 보면 나라히 미약하고 사름이 조잔흔지라 오늘날 우리 대한 형세로 말하거드면 제일 큰 악습이 잇스니 이 악습으로 하여 전국 인민 이천만구에서 일천만은 죽은 모양이오 (...) 다만 기천년 습속에 져서 사람의 남녀 간 평등 권리를 아주 생각지 못한 일이라 이 폐단을 고치라 하면 과히 어렵지도 아니하여 다만 집정하는 사람이 남녀 학교 흥왕케 하면 아마 남녀 무론하고 사람마다 제 권리는 제 권리대로 다 찾아 갈 듯 하더라 (<논설>, 『미일신문』 92호. 1898. 8. 13.)

‘기명하고 부강한’ 나라는 모두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며, 남성이 여성을 압제하는 조선의 습속은 확실한 야만의 표상이다. 이 야만적 구습이 지속되는 동안 ‘전국 인민 이천만구’를 구성해야 할 여성 일천만은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문명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녀 불평등의 악습은 철폐되어야 하고, 비존재에 불과했던 조선의 일천만 여성은 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천이백만’ 국민을 상상하던 남성 주체들이 일천만 여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국민은 ‘이천만 인민’, ‘이천만 동포형제’⁷⁾로 재범주화 되고 있다.

교육은 비국민인 여성을 국민으로 속신(贖身)하는 장치이다. 근대적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근대라는 동질적 시간성을 내면화한 여성만이 이천만 동포형제의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용한 『미일신문』 논설(92호)은 ‘남녀 학교를 흥왕케 하라’는 요구로 끝맺는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대적 훈육 과정을 통과하면서 국

7) ‘이천만 동포’ 혹은 ‘이천만 동포형제’라는 호명은 92호 논설을 전후하여 『미일신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또한 92호 발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일천이백만’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가(國家)라는 근대적인 ‘나라집’⁸⁾에 등록된 신여성들의 정체이며, 이 집의 강한 가부장이 되기를 열망하던 계몽 주체들이 여성을 국민으로 포섭하는 방식이다. 야만과 미개의 표상인 ‘있는’ 조선을 부정하고 문명과 등치되는 ‘있어야 할 조선’을 기획하던 근대계몽기는 전통적인 부권(父權)은 약화된 대신 부권(夫權)은 한층 강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⁹⁾ 말하자면 계몽 주체들이란 전대의 강력한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풀려나온 아들들이며, 이들은 ‘형제’라는 새로운 결속을 통해 잔악한 아버지를 대신 할 근대적인 가부장(家夫長)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國)과 가(家)를 은유적으로 매개하거나 가족을 확대한 것이 국가라는 환유를 통해 국가를 해석하는¹⁰⁾ 이들의 태도는 주목된다. 근대계몽기는 사실상 근대적 ‘개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가족’을 발견하고 있는 셈이다. 가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이라는 ‘가족-국가’의 상상력은 전대의 가문 중심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여성-국민이란 결국 이러한 근대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호명한 신여성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주체로 탄생하는 순간 타자로 기

8)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화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 7. 63쪽. 당시 계몽 주체들은 국가를 한 집안 혹은 가족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훈집안과 ㄹ훈지라** 훈집안식구가 정의를 상통치못하고 의결을 받고지 못하여 부모가 무슴걱정이 잇스며 조식이 무슴 깃뵈미 잇고 하인이 무슴 원통함이 잇는지 몰나 훈편에서는 웃고또 훈편에서는 울어 서로 보기를 초월 ㄹ치 훈디정이면 서로 위로 하며 깃겹게 하여 세상에 사는 조미가 잇게 일실지니가 화합하게 지니기는 (...)” (<논설>, 『민일신문』 3호, 1898. 4. 20.)

9) 이는 비단 조선의 근대계몽기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린 헌트는 페이트먼의 말을 인용해 아버지인 남성이 아니라 형제인 남성, 즉 남편의 가부장적 지배에 여성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옮김, 새물결, 1999. 276~277쪽 참조)

10) 권보드래, 앞의 글, 63~67쪽 참조. 권보드래는 국(國)과 가(家)를 연결시키는 계몽 주체들의 상상력이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身→家→國→天의 전통적인 확산의 상상력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는 근대 들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되는 모순을 담지하게 된다. ‘동포형제’라는 명명 속에는 이미 이러한 모순이 내장되어 있다. 여성은 여성(女性)을 지운 자리에서 신성(神聖)한 동포‘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의 『미일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부장들이 구상한 여성의 국민화 기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미일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이 시기 신문이 국민국가 탄생을 견인한 가장 주요한 계몽 교육의 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미일신문』이 발간된 19세기 말은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라 신문이 계몽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신문 필진들은 계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적 장치를 활용하고, ‘사실’이라는 투명한 의미 전달체로서의 신문의 정체성을 종종 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신문의 주요한 특징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혼종성’이며, 바로 이 점이 근대계몽기 신문을 문학 연구의 새로운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¹¹⁾

이와 함께 이후 신소설과 신문의 담론 연합 역시 『미일신문』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신소설은 대부분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들 여성 인물들의 상승과 파국, 갈등과 화해를 견인한 신소설의 논리를 규명하기 위해 『미일신문』의 여성 호출 방식을 추적해 보는 것은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계몽 주체들이 국가의 기반으로 상상한 근대

11) 문학 연구의 텍스트를 근대계몽기 신문으로 확대하는 작업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일신문』에 국한하자면, 특히 김영민, 정선태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들은 『미일신문』의 ‘논설’란에 주목하고 그 서사적 특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서사양식이 근대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근대적 문학, 즉 소설로 구축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기존의 연구가 일관되게 『미일신문』의 논설을 대상으로 했다면, 최근 김대성의 연구는 『미일신문』의 ‘잡보’란을 통해 동일한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김대성은 각종 사건의 발생과 경과, 그리고 그것의 해결까지를 전달하는 잡보를 통해서 당대에 새롭게 구성되는 ‘서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대성, 『미일신문』의 ‘사실’ 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잡보’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7. 2. 3~6쪽 참조)

적 가족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 이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승인된 여성과 배제된 여성의 외장과 내장을 목도(目睹)하게 될 것이다.

II. 국민의 외부, 음행(淫行)하는 여성들

국민이라는 내부는 항상 비국민이라는 구성적 외부를 필요로 한다. 서구의 경우 대개 외부적 타자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통해서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간 반면, 한국과 같은 주변부 내셔널리즘의 경우는 내부적 타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한다.¹²⁾ 외세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기 전인 19세기 말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시기 창간된 『독립신문』이나 『민일신문』, 초창기 『제국신문』을 읽어 보면, 서구나 일본 같은 외부적 타자¹³⁾보다는, 수구(守舊)하는 관리들, 동학 농민, 무속인, 승려, 유학자, 충군애국에 무관심한 개인주의자, 의병 등 내부적 타자들에 대한 분노나 거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그들은 대개 야만의 표상, 문명의 이물(異物)들로 분류되며 신문은 전근대의 습속을

12) 박노자,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223~231쪽 참조.

13) 『민일신문』의 다음과 같은 논설을 보면 19세기 말 조선의 계몽주체들이 일본을 서구 따라잡기에 성공한 모범적인 아시아 문명국으로 인식한 반면, 청나라는 문명화에 실패하여 야만국으로 몰락해 가는 국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는 외국과 교통할 날 북혀 구습을 일쫓에 바리고 남의 문명헌 나라에서 호는 일을 쓰라가며 힘써홀시 이전법을 가져야 나라히 된다 던지 옛 풍속만 잘 직히여 호는 사름은 차차 밀허니고 새 학문을 안다던지 외국에 가서 공부호 사름을 차차 니세여 가지고 새일을 주장호야 새나라홀 만드렷거니와 청국서는 외국과 통호는 날북허 아모도록 몇천년 몇백년 전 일을 회복호야 죽을기를 쓰고 옛법을 바리지 못홀 줄노 알미(...) 우리동포들은 나라히 일본 모양으로 되어야 도켓소 청국 모양으로 되어야 도켓소 이 두길들에 엇던거시 나홀런지 생각들 호여 보시오” (<논설>, 『민일신문』 18호, 1898. 4. 29.)

않는 이들의 “병통”을 치유할 “보명익괴탕”¹⁴⁾에 비유되고 있다.

신문이 문명의 타자로 분류한 이 비국민의 목록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각종 음녀(淫女)들이다. 신문은 ‘논설’란을 이용해 여성해방, 남녀평등과 같은 문명 담론을 직접 전파하는 한편, “신기한 소문과 희한한 이야기”¹⁵⁾를 기재한다는 ‘잡보’란에 음녀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대중적 처벌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몽 주체들은 규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욕망을 관리한다.

주지하다시피 봉건적 규율이 지배하던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공간은 ‘규방’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각종 구습과 대결하던 계몽 주체들은 규방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과감히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독립신문』의 논설은 ‘내외법’ 과 같은 야만의 습속을 따라 자신의 아내를 집에 가두는 남편을 비판하고, 부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조선 천천 사나회 생각에 즈기 인회가 못 밋어위 문밖의 임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너외하는 풍속을 마련해야 죄인갓치 집에 가두어 두고 부리기를 좋 갓치하고 천디하기를 지기 보다 나진 사름으로 녀이니 엇지 분치 아니하리오(…) 우리는 부인네들의 권호노니 아모썸록 학문을 놓히비화 사나회들 보다 형실도 더 놓고 지식도 더 넓퍼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흔 사나회들을 교혹하기를 바라노라¹⁶⁾

이러한 언설에 자극받은 일군의 여성들이 1898년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학교 설립을 위한 통문을 돌리기도 한다.¹⁷⁾ 그러나 찬양회를 만들고

14) <잡보>, 『미일신문』 158호, 1898. 11. 2.

15) <논설>, 『미일신문』 111호, 1898. 9. 6.

16) <논설>, 『독립신문』, 1896. 4. 21.

17) 찬양회는 여성을 위한 학교 설립을 후원하기 위하여, 서울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1898년 조직된 단체이다. 당시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과부나 서북지방 여성, 또는 함경도 출신 러시아 귀화인 등과 같이 주변부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여권통문을 돌리면서 여성 해방과 여성의 권리를 천명하던 당시 여성들의 욕망과 이들의 욕망을 ‘개화·계몽=충군애국’이라는 단일한 열정으로 수렴하려는 계몽 주체들의 요구가 온전하게 합치될 수는 없었다. “동일한 정신을 가지며 동일한 행동을 하여 그 내부의 조직이 한 몸의 골격과 흡사하며 대외의 정신이 한 병영의 군대와 흡사한”¹⁸⁾ 국민을 상상하던 계몽 주체들에게 해방의 흐름을 타고 다양한 욕망을 부러놓는 여성들은 계몽의 새로운 불안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근대적 가족을 구상하던 계몽 주체들에게 규방 외부로 나와 응시와 매혹과 유혹의 대상이 된 ‘가시성’의 여성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할 잠재적 ‘음녀(淫女)’일 수 있었고, 그들이 잠재성을 탈각하고 현실로 부상하는 순간 근대 주체들의 기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계몽 권력은 신문·잡지·소설과 같은 공적 언술의 장을 활용하여 여성 해방을 촉구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이에 자극받은 여성들의 욕망을 다시 규율함으로써 이들을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새로운 사적 영역으로 귀환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이 의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근대계몽기 신문이다. 당시 신문은 소문과 채탐(採探), 투고된 편지의 형식을 빌려 계몽의 열정으로 수렴되지 않는 음행(淫行)하는 여성들을 잡보란에 기사화하면서 처벌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당시 ‘잡보’란은 신문 권력이 계몽의 타자라고 분류한 인물들을 대중적으로 응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⁹⁾

푸른역사, 2004. 40~41쪽.) ‘통문’이란 조선시대에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참여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돌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경하, 『대한제국 여인들의 신문 읽기와 독자투고』, 『여/성이론』통권 12호, 2005. 여름. 281쪽.)

18) <논설>, 『대한매일신보』, 1908. 7. 30.

19) 아래 인용한 기사들을 보면 당시 신문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훗 신문 괴자가 었던 노지상과 문답 훗 것 (...) (하 세상이 다 잘못 흐드러도 대감피서만 올케흐시면 그러치 안치요) (허허 그러치 만은 신문에 꼭꼭

그렇다면 이 잡보란에 기재된 음행하는 여성들은 누구이며 음란함의 표지는 무엇인가. 음녀로 기입되는 여성들 중에는 먼저 가부장(家夫長)의 권위를 넘보거나 그들의 권위를 훔쳐 남성들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공과 사의 접점에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 『미일신문』에 몇 차례 기록되는 ‘산월이’라는 기생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민판서의 여자에서 고등 재판소 판사 마준영의 여자로 옮겨간 그녀는 마준영의 권력과, 조카인 평양 관찰부 총순 김지찬의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서 승소하고 이를 보도한 신문을 “무란히 야료”²⁰⁾한 ‘유부’로 기록되어 있다. 『미일신문』주체들은 육체를 성적으로 이용해 남성 관리를 타락시키고 민생을 혼란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한편, 수구 세력으로 분류된 마준영을 공격하기 위한 기제로 산월이를 활용한다. 산월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계몽 기획자들이 여성에게 허용한 공적 영역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학교, 토론회, 교회와 같은 새로운 공적 공

집어내는 것이 올키는 다 올라 실상 즈네 드러 말일세만은 늘 그러키만 너 여도 벼슬 다니는 사름들이 조심은 대단이 헤테야 **나 붓덤도 신문에 너이 는 것슬 무서워는 아니 헤테지만은 겁은 좀 나데** (<잡보>, 『미일신문』, 1898. 6. 15.)

(나) 여보게 아모 고을이 요시 공관이라지 그 동안에 누가 시로났나 (아니 아즉 안났느니) (….) (어 그스름이 원식혀 줄길을 찾는단 말이야 그레기에 지금 공관된 고을을 그스름을 식혀주고 전 천식이나 엇어쓰잔 말일세) (**쉬 여보 게 그런 소리말게 나는 슬여 짓되 헤테다가 신문에 나게**) (<잡보>, 『미일신문』, 1898. 6. 17.)

(다) 서울사는 녀인 허나이 경귀 관찰스와 인척간이 되는데 전위허야 느려가 빅성의 송스 허가지를 청축 허엿더니 경귀 관찰스의 말이 오걸될 청은 안이나 과시 **신문지에 날가 넘녀되여** 이일을 못헤테다고 허는고로 소지를 정헤테지도 못헤테다더라 (<잡보>, 『미일신문』, 1898. 10. 24.)

기사에 등장하는 노재상, 관직거래자, 인사 청탁하는 여인 등이 공통되게 두려워하는 사항들은 대개 잡보란에 기재되었다. 당시 신문 주체들은 신문을 “보명 익기탕”에 비유하며, 신문이 “세상 병통을 곳칠만한”(<잡보>, 『미일신문』, 1898. 11. 2.)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20) 『미일신문』 62호, 1898. 6. 20. 잡보. 기생 ‘산월이’에 관한 기사는 『미일신문』 62호, 64호, 65호 등에 계속 기재된다.

간은 오히려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을 계몽의 범망으로 유인하고, 그 범망으로부터 도주하는 여성들을 감시하는 효과적 장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게 순치된 열정을 이탈하여 권력의 주체, 욕망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과도한 열정을 지닌 여성들은 영락없이 “요사하고 간악한 계집”(『미일신문』 66호)으로 매도되며, 남편을 타락시킨 나쁜 아내이자, 위협한 여성으로 분류된다. 신문은 이 국민의 외부를 수시로 환기하면서 정결한 국민의 내부를 구획한다.

계몽의 타자로 배제된 것은 산월이와 같이 음란함으로 남성 권력을 흠쳐낸 남성-여성, 즉 비자연적인 여성만이 아니다. 확실한 성적 방탕의 표지를 지닌 간음하는 부녀들, 매음녀들 역시 ‘잡보’란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들이다. ‘시친(媿親)’이 보낸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 『미일신문』이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김녀’도 그런 부류들이다.

교동군 서면 두산리 사는 오한열의 처 김녀가 동리사는 지우삼이란 놈을 잠통하여 가지고 금년 정월 이십 일일밤에 본부 오한열을 타살하고자 그 형 성규가 본관에 받고하여 (...) 그 시친들이 본사에 편지 하였기로 기지 호노라 (『미일신문』 38호, 1898. 5. 13.)

유부녀를 유인한 죄인 리진홍과 지아비를 비반하고 도망하던 계집 김녀를 다 잡아 경무청에 갖두었다 하니 리가와 김녀의 **비루한 행위가 무례한 풍속**으로 여항간 적은 일인듯 하니 풍화에 대단한 죄상인 고로 **그런 죄인은 다 죽이는 법이라더라** (『미일신문』 172호, 1898. 11. 5.)

충국애국으로 견인할 수 없는 ‘김녀들’의 열정은 계몽의 이념 자체를 무화시킬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므로 지아비를 배반하고 가정을 파탄낸 김녀들의 ‘열정적 사랑’²¹⁾은 죽음으로 응징해야 할 ‘비루한 행위’ ‘무례한

21) 앤소니 기든스는 사랑을 숭고한 사랑,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의 세 층위로 분류하고, 열정적 사랑을 개인들을 현세로부터 뽑아올려, 회생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여줌으로써 하는 파괴적이며, 사회적 질서와 의무라는 관

풍속'이 된다. 죽음도 불사하는 열정적 사랑은 오직 애국(愛國)으로만 수렴되어야 했다.²²⁾ 따라서 국가라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통간(通姦)'으로 취급되며, 간통은 모반이나 강도와 동일한 중범죄로 분류된다. 신문은 이러한 잠통녀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비극적 최후를 인도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한편,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열녀·효부·현처를 잡보에 배치함으로써 그 대비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다방골 사는 옥진이라 호는 기상이 십여일 전에 죽어 발인 호야 나가
 날 선던 시땀 하나히 길에서 치제호고 (...) 흑설 을 들은즉 전 옹진
 군슈 리근영씨의 오들 노 더부러 산셔 희땀을 밧갓다가 리씨 의 주쳐
 호 소문을 들트 밧세를 밧아 정 으로 죽엇다 호더라 (『미일신문』91호,
 1898. 8. 20.)

황희도 희쥬 유상 리규현등이 니부에 소지 호기를 본군 박쥬우 안희
 희쥬 오씨가 식부모의게 호형은 왕상과 밧종의 본을 밧트 또한 남편
 의게 정렬이 도져호죽 정문을 표호여 달나고 호엿던디 (...) (『미일신
 문』 124호, 1898. 9. 21.)

고성군 안창면 강당리 사는 박과부가 나히 이십일세인디 주그 과부
 시어머니로 더부러 의탁 호야 살더니 그고를 상초현리 최쥬일의 집에서

점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형태의 사랑으로 특징짓는다.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6. 82쪽.)

22) 애국을 향한 파도스를 일깨우는 다음과 같은 '논설'이 근대계몽기 신문에서 자주 확인된다.

각국에 만이 유럽 호고 온친구가 말호되 남의 나라 인민들은 나라를 위호는
 마음이 심장에 가득호야 (...) 몸을 스스로 호호여 전장에 나아가 죽기로 밧세
 호고 외적을 막으려 호니 이는 인국 호기를 제 목숨보다 더 중 히녁이는 비라
 (...) 우리나라 인민들이 점점 찌다라 지금은 권리 차출 줄도 알고 제법 나라를
 위호야 죽어볼 생각들이 사롬마다 싱기미(...) (『미일신문』 48호, 1898. 5. 26.)

23)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5. 2. 58~61쪽 참고.

고용 호는 리노불이가 홀아비로 박과부 엇을 흥계를 내여 (...) 띄류 십 여명을 다리고 밤에 박과부를 결박 호야 갖거늘 박과부의 집에서 관가에 정소 호야 차차 식가로 보내엿더니 박과부가 죽고 식숙이 어디 갔다 온 후에 그 육본 스상을 말 호고 무를 씨스려 물 가에 간다 호고 물에 빠져 슈중 원혼이 되얏는지라 (...) 박과부의 정렬은 미오 드문 일일너라 (『미일신문』197호, 1898. 12. 17.)

기사는 육진이라는 기생, 박과부, 박주우의 아내를 ‘열녀’의 표상으로 긍정하고 있다. 육진이나 박과부의 죽음이 용인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가부장(家夫長)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이다. 계몽 주체들은 이 ‘자결’하는 ‘열녀’들과 지아비와의 의리를 배반하는 ‘음녀’들을 신문에 기재하면서, 여성들의 ‘열정(熱情)’을 ‘정렬(貞烈)’로 치환하고자 한다. 이 치환의 욕망이 사실의 기재라는 잡보의 형식을 빌려 음행(淫行)과 열행(烈行), 음녀와 열녀를 계속해서 생산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 계몽기 ‘잡보’는 매우 문제적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환상을 전파하면서 실은 사실을 생산하는 혹은 구성하는 장치가 잡보라고 할 때, 이 잡보의 역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 ‘신소설’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반영(재현)’하는 신소설 창작이 본격화되면서 잡보가 담당했던 기능은 상당 부분 신소설로 이전된다. 음부(淫婦)에 대한 관리와 처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소설에서 육체적 정숙성을 지키지 못한 음부들의 최후는 대개 비극적이다.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소설적 처벌이 가해진다.

성적 타락의 표지인 매음녀들 역시 강하게 부정되는데, 특히 이들 매음녀들은 계몽의 주체이자 새로운 국민이 될 ‘소년’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엇더헌 유지각헌 이가 본사에 편지 호기를 근리에 년소헌 친구던지 각학교 학도들이 학문 비오기는 성력이 업고 로류장화를 차자가서 술들 취토록 먹고 후 후쥬도 호며 후 계집에 침혹호야 가산을 탕피하고 제

몸신지 망하니 그런 무지각한 소년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때
 음 하라고 (...) 남을 쫓이는 계집들을 다 엄히 금할 것이오 (...) 녀
 인의 밤 출입하는 버릇을 금 하여야 남의 년소한 즈질을 버리지 안
 이 하겠다고 말 하였더라 (<잡보>, 『미일신문』130호. 1898. 9. 29.)

새로운 국가의 중심이 될 동포형제들에게 성적 방탕을 전염시키는 이
 비체(卑體)적 여성들은 근대라는 동시대성을 공유할 수 없다. 남성의 권
 력을 넘보는 여성들, 개인적 열정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음부들, 미래의
 국민을 유혹하는 매음녀들, 처의 권위를 넘보는 첩들, 미신을 신봉하는
 여인들은 비루한 풍속에 결박되어 과거라는 이질적 시간대를 살고 있는
 계몽의 외부들로 배제된다. 계몽은 항상 이러한 외부를 설정하면서 ‘하
 나로서의 다수’²³⁾인 국민을 상상한다.

그렇다면 음녀로 배제되지 않고 국민으로 승인되는 여성은 누구인가.
 여성이라는 열등한 지위를 속신하고 국민의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
 성이 경유해야 하는 근대적 경로를 따라가 보자.

Ⅲ. 일부일처제라는 장치, 가부장(家夫長)의 아내들

교육은 유교 질서를 체현한 조선인들을 근대 질서를 내면화한 국민으
 로 견인하는 장치였다. 계몽 주체들은 전대의 유교 교육을 “나무를 격구
 로 심고 그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폄하하는 반
 면, “세계 기명한 나라에서 들은 인민 교육”, 즉 근대적 교육을 대한 인
 민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합당한 도”²⁴⁾의 구현이라고
 천명한다. 근대 교육의 중요성과 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근대계몽기 신문

23)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02. 305쪽. 호미 바바가 언급
 하는 ‘하나로서의 다수’란 국가 공동체를 은유하는 말이다.

24) <논설>, 『협성회회보』1호, 1898. 1. 1.

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한 부분이었다. 또한 신문이란 매체 자체가 근대적 국민 생산을 위한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²⁵⁾

근대적인 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교육은 여성이 차별적인 성적(性的) 지위를 해소하고 ‘국민’이라는 평등하고 투명한 존재로 거듭날 일종의 통과제의적 장치로 홍보되었다. 예컨대 근대 주체들은 조선 여자가 불행한 원인은 그 남편의 압제에 있으나, 그 압제를 용인하게 한 것은 여성의 교육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성이 해방 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남녀 불평등, 여성 압제의 좀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들이 지적한 것은 ‘조혼(早婚)’이나 ‘억혼(抑婚)’과 같은 전대의 혼인 풍속이었다. 계몽 주체들은 조선 여성의 불행이 전통적인 혼인제도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혼인제도의 근대적 개혁이 여성해방이나 남녀동등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과 관련한 언설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혼인 제도’의 개혁이었다.

근대적인 혼인제도와 관련해 신문이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였다. ‘논설’을 통해서 조선의 혼인제가 가진 모순을 공격하고 서구의 결혼 풍속을 홍보하는 방법과 ‘잡보’란을 활용해 축첩제를 포함한 조혼과 억혼이 가져온 각종 폐해를 전시하는 것이다. 『민일신문』잡보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군이 ‘첩’들이다. 그들은 대개 문란과 악덕과 부도덕의 표상으로 환기되며, 신문 주체들은 이 첩들의 각종 부정과 비행을 고발하면서 전대의 축첩제도와 대결한다. 예컨대 이 시기 『민일신문』잡보에 흔하게 기재되는 사건은 첩이 정실을 능멸하거나 혹은 첩이 정실을 죽인 사건이었다.

(가)남대문밖 은방 시정 아모가 그만히로 금슬이 화합지 못흐미 미식

25) 전국 동포형대의게 신문으로 교육하고 언설노 효유하야 사람마다 각가 분수에 잇는 권리를 직히는 지식을 길너주랴하니(…) (<논설>, 『협성회회보』, 1898. 3. 26.)

을 광구하여 첩 하나를 엮은즉 아리싸은 티도가 **사람의 정신을 미혹
하게 하는지라** 그첩으로 혼집에 동거하미 일동일절을 그첩의 지휘대로
만하니 더구나 정업은 본실이야 그정경이 엇더하리오 어언간 수년을 지
니미 집안에 통동흔 권리는 다 첩의계로 도라 갖스되 **첩의 간교한 마음
은 오히려 홍상 그정실을 모회할 마음을 두더니** (….) 아모가 간장이
바이지는듯 하여 첩잇는곳에 짜라가 인걸하미 첩이 말하기를 본실을 니
여쭈어야 들어가지 그러치 안으며 밍세코 갖치 사지아니 하리라 흐므로
아모가 방금에 그 **본실을 무고히 박디하여 니여 쏘즈려 하는중이라
하니 이러한 놈은 법사에 잡어 다스려 풍화를 온전케 할 일이다**라
(『미일신문』16호, 1898. 4. 27.)

(나)비야골 사는 진상언에 첩이 그 정실을 죽인스의는 본보에 임의
그지 하얏거니와 이제 한성 지판쇼에서 판결하여 법부에 질품흔 니기에
한성 준천샤 뒤에 사는 피고 김쇼스는 나히 삼십세인디 쇼고년에 음력
삼월 십오일에 데남편 진상언이 밧게 나간 틈을 타서 데오라비 **김복길
을 위협하며 달니여 흠피 다리고 데남편에 정처 십팔세된 최씨에 목
을 사나의 찌는 서양목 허리찌로 올라 밧여 잘오고 녀편네 허리찌로
최씨의 입을막고 데오라비 복길은 가삼우혜 거러안져 놀으며 최씨를
음푼듯하게 하고 당장에 죽여서** (….) 피고 김쇼스는 오리비를 위협하
야 **흠피 찌하야** 남의 첩이 되어 그 정실을 거슬너 죽인죄는 맛당히
능지하여 죽일 것이요 (….) (『미일신문』20호, 1898. 5. 2)

(가)의 경우는 첩이 정실을 무고한 사건이며 (나)는 첩이 정처를 죽인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서사화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데, 신문 필진
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처첩 쌍방 간의 갈등에서 찾기보다는 일방적인
첩의 악덕으로 환기한다. (가)가 좀더 직접적인 언설-‘사람의 정신을 미
혹 하게 하는지라’, ‘첩의 간교한 마음’ 등-로 첩을 공격한다면, (나)는 첩
이 정처를 살해하는 상황을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첩의 잔인함을 부각
시키고 그녀의 행위에 대한 독자의 분노를 촉발한다. 정처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시선을, 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미
일신문」주체들의 태도는 처첩제의 모순을 첩의 일방적인 과실과 악행으

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는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신소설 작가들의 계몽적 태도와 흡사하다.

처첩제와 더불어 매매혼이나 억혼의 폐해 역시 잡보란에 수시로 기사화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결혼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 행각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억혼의 부정적 측면을 환기하고 있다.

남셔 명동 사는 김소스라 혼는 이가 쫄 하나를 두엇 논디 그 아름다 온 티도는 허당화가 아츰 이슬을 먹음은 듯 월궁 흥아가 반 분튀를 드스린 듯 허더니 년전에 던동 사는 리대중이라 혼는 사름이 말 허기를 슈원 오정면 삼정리 사는 구씨라 혼는 신랑이 잇논디 그 문벌 인즉 안동 흥판서의 외 스촌이오 그 지산인즉 미우 부요가 즉시 허락하고 그 쫄이며 가산 집물을 거나리고 슈원으로 나려 간즉 그 신랑이라 혼는 사름은 구씨가 아니라 정가요 그위인도 듯든 말과 대단히 틀닌 지라 김소스가 분함을 익이지 못허야 그 쫄을 다리고 도로셔울 노 올라 왔논디 그간에 정가에게 건몰된 돈이 수천금이 되논지라 (...) 계집을 속여 지물 탈취혼 죄는 비루도 허거니와 그런 못 싱긴 사름은 범스에서 웅당 엄치 허야 밋아 줄 듯 허다고 들 허더라 (『미일신문』86호, 1898. 7. 28.)

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머니 김소사의 의지에 따라 “제 먹음은 못도 아니히고 부모의 먹음디로 중미에 말만듯고 그집 가문이 나와 상적헌지 살남사리가 과히 불빈헌지 신랑이 잘싱겼는가 니왕허야 궁합을 맞추와 보고 혼인”²⁶⁾하려던 이 사건은 계몽 주체들이 개혁 대상으로 겨냥한 전형적인 전대의 혼인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계몽 기획자들의 시선에 포착된 ‘김소사의 딸 결혼시키기’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대적인 결혼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대의 혼인 풍속과 관련한 사건들을 배치하는 신문 주체들에게 남녀 결연의 불행, 더 정확히 여성의 모든 불행은 바로 조선의 혼인 풍속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26) <논설>, 『미일신문』 124호, 1898. 9. 22.

조혼, 억혼, 처첩제 등 전대 혼인 제도의 폐단을 집중 부각시킨 신문은 이른바 “서양 기명 하였다는 나라 사람들의 혼인 하는 법”²⁷⁾을 소개하고 있다.

서양 기명 하였다는 나라 사람들의 혼인 하는 법은 (...) 먼저 남녀 학교를 설립하여 사람마다 학문을 배운후에 남녀간에 나히 이십세 지음된 후에 비로소 혼인하기를 허락하면 위선 절름 사람들의 병도 적고 요스 하는 폐도 업고 남녀간에 의혼 하거든 피츠 디면 하야 저의 마음에 원하고 원치 안이함을 들어성혼 하되 그쓸디업는 레절은 다치지 하고 피츠 일츠 교비나 하고 모흔손 대접이나 하고 그 웅장 성식과 눈을 감는다 스폴르 쓴다 관디를 입는다 그 어리석은 짓은 다폐지 하였스면 아마 죠홀 듯 하고 (<논설>, 『미일신문』 126호, 1898. 9. 24.)

『미일신문』주체들이 서양의 혼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혼 연령’과 ‘결혼 당사자의 의사’이다. 조혼을 질병과 죽음에 연결시키면서 결혼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계몽 주체들은 그 기간을 남녀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서구의 매너를 내면화한 근대적 개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일처’로 결합하는 것이 근대적 결혼이며, 이는 죽음이나 질병, 불행과 연결되지 않는 정상적이고 합법화된 결혼 제도로 인식된다. 『독립신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논설이 실리는데, 『독립신문』주체들은 근대적 결혼의 전제가 되는 본인의 의사를 바로 ‘스랑’이라 명명한다.

남의 나라에서는 사나희와 녀편네가 나히 지각이 날만홀 후에 서로 학교든지 교당이든지 친구의 집이든지 못고지 갖흔디서 만나 만일 사나희가 녀편네를 보야 스랑홀 심각이 잇슬것 갖흐면 그 부인 집으로 가서 자쵸 차차 보고 서로 친구 갖치 이삼년 동안 지내 보야 만일 서로 춤 스랑흔는 마음이 싱길것 갖흐면 그때는 사나희가 부인 드려 츀기 안히가

27) <논설>, 『미일신문』 126호, 1898. 9. 24.

되기를 청하고 (...) 만일 믿음에 합의 할것 갓흐면 허락헌 후에 몇 돌이
고 몇해동안을 또 서로 지내 보아 영영 서로 단단히 사랑호는 믿음이
잇스면 그때는 혼인 택일 하여 교당에 가서 하느님의 서로 밍세호되
(...) 관가에 가서 관허를 맞하혼인 호는 일즈와 남녀의 성명과 부모들의
성명과 거주와 나홀 다 정부 문적에 기록 하여 두고 (...) 이런 고로 사
나희가 언제든지 즈기의 안희를 사랑호고 위호고 밋고 도와 주고 녀편
네가 즈기의 남편을 사랑호고 공경호고 밋고 의지 호거니와 (...)28)

『독립신문』이 결혼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 사랑의 정체는 무엇인
가. 그것은 자신의 본부(本夫)를 살해하고 외간 남자와 야반도주하던 위
험한 사랑, 성적 방탕이나 성적 타락을 환기하던 음녀들의 열정적인 사
랑과는 구별된다. 이 사랑은 남녀 각자의 “믿음에 합의”를 거쳐 “몇 돌
이고 몇해동안을 또 서로 지내 보”고,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서로 밍세
호고” “관가에 가서 관허를 맞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랑이며, “사나
희가 언제든지 즈기의 안희를 사랑호고 위호고 밋고 도와 주고 녀편네
가 즈기의 남편을 사랑호고 공경호고 밋고 의지 호”는 행복한 가정을 담
보하는 사랑이다. ‘연애 - 결혼 - 행복한 가정’의 복합체를 이루는 이 근대
적 사랑을 앤소니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 으로 분류한다.29)

근대가 발견한, 매우 세심하게 관리되고 제어된 이 이성적 사랑을 통
해서 국가가 공인한 ‘근대적 가족’이 탄생하며, 이러한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은 새로운 질서로 규율된다. 즉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믿고 도와주
며’,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는’ 부부 중심, 혹은 가부장(家
夫長) 중심의 질서가 구축되는 것이다. 가문(家門) 중심 사회에서의 전
통적인 ‘가부장(家父長)’을 대체한 새로운 ‘가부장(家夫長)’의 탄생이다.
이 근대적인 가부장(家夫長)의 지휘 아래 관리되는 가정만이 건강한 국
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만이 근대적인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28) <논설>, 『독립신문』 27호. 1896. 6. 6.

29)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83~86쪽 참조.

여성은 이 질서에 순응하고 근대적 가정의 질서를 내면화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 기입된다. 학교에 가서 “학문을 비운후에”에 “이십세 지음”에 “저의 마음 원”해서 결혼한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최종 귀착지는 바로 이 가정이며, 공경하고 의지해야 할 남편의 곁이다. 이제 근대적 가족의 마지막 구성원인 자녀들을 통해서 여성은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IV. 아이의 발견, ‘어머니’라는 국민의 탄생

국민국가를 기획하던 계몽 주체의 시선에 ‘아이들’이 포착된다. 『미일신문』 <잡보>란에는 미아(迷兒)를 찾는 기사가 자주 실리는데, 신문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계몽기 신문 주체들 역시 사실상 ‘아희들’이었다. 『미일신문』이나 그 전신인 『협성회회보』를 창간한 주체는 “비지학당 〇희들”³⁰⁾이었고, 그들은 또한 “충군이국 목적 잇는 〇희들”이라는 공통점으로 결속한 집단이었다. 개화·계몽이라는 충애(忠愛)를 실천하는 아이들이 신문을 통해서 다시 그들과 같은 동일자를 호출하고 있는 셈이다. ‘충군이국’이라는 이 일심(一心) 또는 합심(合心)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신분, 성별, 출신, 직업 등 실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익명의 아이들을 ‘충애하는 아희들’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어낸다. 그들은 신문사에 “기명진보”³¹⁾하자는

30) <잡보>, 『미일신문』 201호, 1898. 12. 22.

31) “동십자교 스는 우순동이란 〇희가 우리 회보에 편지 하였는디 근일 신문을 보니 영 아 법 덕이 청국을 분파하여 동양디경에 일이 만타호오니 우리나라도 청국과 궤치 위태호니 우리나라 신민들은 이 때를 당하여 동심 협력하면 남의 나라에 슈치를 면홀터이오니 아모조록 우리도 일심하여 기명진보호자 하였다더라 (<니보>, 『협성회회보』 8호, 1898. 2. 19.)

편지를 쓰고,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충군인국 목적 있는 오희들”³²⁾이면 누구나 허용된 ‘학교’에 다닌다. ‘취영회’나 ‘의동회’와 같은 회(會)를 만들어 “충의의 목적을 연설”³³⁾하고, “충이하는 사람들을 초모하야”³⁴⁾ 만민공동회에 참가하려고 제주에서 상경하기도 한다. 개명진보를 주장하는 서울의 ‘우순동’이라는 아이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자 상경하는 제주도의 ‘십오세 김가 아희’를 연결하는 것은 한결같이 ‘충의’이다. 이 ‘충의’가 호출하고 ‘충의’의 표상이 된 아이들이 “대한테국 인민”³⁵⁾이 되며, 계몽의 순결한 바탕이 된다.

근대 기획자들에게 아이들은 조선의 습속에 가장 적게 길들여진 자들이다. 따라서 가장 용이하게 문명을 내면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조선인을 넘어 ‘문명인’을 욕망하고, 문명인을 통해서 ‘국민’을 상상한 조선의 계몽 주체들에게 아이들은 ‘미개·야만·질병’을 환기하는 일체의 조선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하고 건강한 존재들로 인식된다.

동도 산협동에 흐 대촌이 잇는디 그 마을 가운데 우물이 잇서 그 동리 모든 인구가 다민 그 우물 하나로 먹고 사느비라 서울 사는 서성이라 하는 사람이 산천을 류람홀츠로 집을 써나 스방으로 주류를 한다가 못춤 그곳에 이르러 흐 집을 차차 들어가 주인을 디하야 흐씨 유숙 흐기를 청흐디 그 주인이 손의 말을 듯지 안코 무례히 질욕하며 달녀 들어 짜리려흐거늘 급히 몸을 피하여 다른 사람을 보고 주인의 실성함을 말흐디 그 사람도 쏘흔 경계업시 짜리려 흐디 발명홀 곳이 업슴으로 산

32) “의동회에서 회장 리달호씨가 각 성문에 방을 붓치기를 의동회를 전 경기감영 집스청 광흥학교를 설시 하였스니 충군인국 목적 있는 오희들은 다 오라고 하였더라”(〈잡보〉, 『미일신문』 200호, 1898. 12. 21.) 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학교는 신분, 계급 등의 수직적 관계를 초월해 수평적인 관계 형성의 장이 되고 있다.

33) 〈잡보〉, 『미일신문』 200호, 1898. 12. 21.

34) 〈잡보〉, 『미일신문』 195호, 1898. 12. 15.

35) 〈잡보〉, 『미일신문』 201호, 1898. 12. 22.

간에 몸을 숨겨 밤을 지내고 가만히 동등에 내려가 그곳 사람들의 거동을 숨혀본즉 스오세 유은은 텃품을 온전히 직혀가나 그의 장성한 즈들은 광기를 발하여 혼동리 사람 끼리도 서로 욱하고 치며 약혼즈는 강혼자의게 죽기도 호는지라 (….) (<논설>, 『미일신문』10호, 1898. 4. 20.)

이 논설에서 신문 주체들은 수구(守舊)하는 자들을 ‘광인’으로, 개화의 전위인 자신들은 광증을 치료하는 ‘서울 사는 서싱’으로 알레고리화하면서, 천품을 온전히 지켜 광기를 발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스오세 유은’을 상징하고 있다. 천품 혹은 “본심”³⁶⁾이 변하지 않아 수구하지 않고 충애를 실천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은 ‘문명화된 조선인’을 넘어 ‘문명인인’ 대한제국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미래’라는 새로운 시간과 접촉한다. “조상적 붓혀 몇천년 내려 온 우물”을 먹어 광증이 발한 “장성한 즈들”이 ‘과거’를 환기하고, 그들의 병증을 치료하는 “서울 사는 서싱”이 ‘현재’와 연결된다면, 오래된 우물이라는 오염된 과거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은 미래를 의미하게 된다. ‘충인’, ‘순결’에 이어 근대계몽기 신문이 아이를 표상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이렇듯 ‘미래’³⁷⁾와 ‘아이’를 결합하는 것이다. ‘충인 - 순결 - 미래’의 집합적 표상,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아희들’의 정체인 것이다.

36) 개화는 곧 충인의 표현이며 충인은 곧 하늘이 주신 본심이다. 그러므로 개화·계몽이 곧 본심을 지키는 것이며, 수구(守舊)는 본심에 위배되는, 하늘을 거역하는 일, 즉 치명적인 죄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37) 전통적인 시간은 자연의 순환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순환론적 시간이다. 이 순환론적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밖에 없으며 미래는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미래의식이 나타나면서 순환론적 시간은 붕괴되고 직선적 시간관이 형성된다. 미래는 계산 가능한 추상적 시간이며 미래 의식은 아직 없는 것을 선취하는 의식이다. 이마무라 히토시는 이를 상인의 시간이라 명명하며,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연결시킨다.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66~69쪽.)

저 나무는 우리 선조의 손으로 심으신 나무라 (….) 조세히 본즉 뿌리가 들이치고 썩이먹어 나무가 거의 전도홀 디경이 되었스니 선조의 심으시던 마음이 오늘날 허경이라 생각하면 통곡류체 하는 중 (….) 청컨더 나를 위하야 방낙을 가라치라 내 초당 주인의 말을듯고 감창흔 마음을 익이지 못하야 유연이 남산을 보다가 주인을 디하야 말 흐기를 곱히 걱정홀일이 안이라 어렵지 안이흔 방칙이 잇스니 첫지는 그디의 집 어린 옹희를 금하야 나무 뿌리에 흙을파지 못 하게하고 들지는 아희를 명하야 나무 뿌리에 흙을 더 도도며 또 물을 기러주어 불식지공이 잇스면 나무 뿌리가 자연히 완고홀 것이오 뿌리가 완고하면 지엽이 변화하야 나무가 조잔하기는 고스하고 무성흔 모양이 전보 다 빅빅나 더 흐리라(…) (〈논설〉, 『미일신문』164호, 1898. 11. 9.)

선조가 심은 나무는 한때 “지엽도 무성하고 지목도 건장하여 화조월석에 경치를 도도으며 룡동설한에 봄빛이 의구”했으나 지금은 “뿌리가 들이치고 썩이먹어” 전도(顛倒)할 지경이 되었다. 아이는 이 “나무 뿌리에 흙을 더 도도며 물을 기러주어” “무성흔 모양이 전보다 빅빅나 더”할 나무, 즉 ‘기명진보’한 조선의 미래를 일구는 자로 상징된다. 이와 같이 계몽 주체들은 아이를 통해서 미래를 선취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를 버리거나 박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충의 - 순결 - 미래’의 반대편에 있는 자이며, 계몽의 적이요 확실한 비국민(非國民)일 수밖에 없다. 『미일신문』은 ‘잡보’란에 이러한 아이를 버리는 ‘모진 남녀’, ‘나쁜 계집’들을 고발하고 있다.

지논들 이십륙일에 수표교밋히 엇더흔 계집이 옹희를 내다버려 죽엿논디 밍우 악착하더라 (〈너보〉 『협성회회보』10호, 1898. 3. 5.)

동관 스는 리치순이가 중년 상처하고 시로 장가들어 룡년이되얏논디 금슬지락이 협흡하야 빅년을 동쥬하랴하엿더니 작년정월본에 리치순이가 양쥬짜에 갔다가 흐로 밤을 자고 와본즉 제쳐와 가장 쥬물이 다 간 곳 업고 다만 젓먹는 어린 아희만 누어 고고히 우는지라 리치순이가

(…) 그후로 근유를 치득흔즉 동서 구동부꼴 사는 고가가 간계를 베푸러 그계집을 띄이여 가산 줍물까지 가져 갔는지라 (…) 리치순이가 뱀스에 정하야 계집과 지산을 차차 달나고 하였다는더 기간에 그 어린으희는 말나 죽엇다 하니 티오 참혹한 일이더라 (<잡보>, 『민일신문』 127호, 1898. 9. 25.)

신문 필진들은 리치순의 처가 남편을 배신한 간부(奸婦)라는 점보다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잔인한 어미라는 사실을 더욱 초점화한다. 기사 말미에 아이의 죽음을 참혹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신문은 나쁜 어미에 대한 독자들의 분노를 자극한다. 신문·잡지와 같은 근대적 여론 형성 매체를 통해서 남성 주체들은 모성(母性)을 저버린 이러한 어미들을 고발하고 감시하면서 좋은 어머니, 즉 ‘현모(賢母)’를 기획한다. 아이가 발견되면서 여성은 강한 가부장의 양처(良妻)에 이어 아이를 양생(養生)하는 ‘어머니’라는 의미망으로 다시 포획되는 형국이다. 여성은 실상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모성이 여성성과 결합되면서 여성은 모성을 제외한 일체의 정념을 무화하고 무성적(無性的, asexual)인 어머니로 거듭나야 했다.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의 중요성 역시 여성의 이 어머니-되기와 관련된다. 여성 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자질 갖추기에 집중돼 있었다. 근대적 교육을 내면화한 어머니만이 근대적 국민을 낳고 기를 수 있다는 모성 담론이 계몽 주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확산된다.

녀편네의 직무는 세상에 나서 사나히를 골으치라는것이라 녀편네가 학문이 잇거드면 즈식을 처음에 비속에 포티 흐엿실 때브터 아홉 둘을 잘 보호하야 해산후 후로 츠츠 기르면서 더웁고 침고 주리고 비부르고 가렵고 압흔것을 때때로 잘 슬피여 묘리 잇게 길너 내여³⁸⁾

38) <논설>, 『독립신문』, 1898. 2. 1.

동양이 미약하고 진흥하지 못함은 실로 여자의 교육이 없음이라. 여
인이 무식하고 어찌 그 소생된 남자가 명철하기를 바라리오³⁹⁾

인용문의 논설은 여성의 직무가 오직 자식을 낳고 가르치는 것이며, 어머니의 자식 교육은 태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자녀 교육에서 그 중심이 아버지였다면,⁴⁰⁾ 근대적인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 된다. 무식한 여인은 미래의 국민인 ‘사나히’를 온전하게 길러낼 수 없고, 그것은 국가가 진흥하지 못하고 나아가 동양이 미약한 이유이다. 모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몽 주체들은 여성 교육을 국가나 동양의 발전과 같은 거대서사와 직결하는 비약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성 담론은 이후 신소설이 전파하는 가장 주요한 이데올로기가 된다. 예컨대 이해조는 『자유종』에서 여성 인물의 입을 빌려 여성의 직분이 “이 다음 남자와 이 다음 여자”⁴¹⁾의 교육에 있다고 역설한다. 여성의 언설에 계몽 주체인 남성의 목소리가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적 영역으로 불러 나온 여성들은 모성 담론과 더불어 다시 가정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귀환하도록 요구받는다. 전근대적인 ‘규방’과 외장만을 바꾼 근대적인 ‘가정’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아내이자 어머니로 재정의된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이 배제한 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

39) 『제국신문』, 1901. 4. 5.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107쪽에서 재인용.)

40)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자녀 교육 목표는 덕과 지가 출중한 사람, 곧 ‘군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자녀들의 독서 지도가 중요한 일과로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하루 5~6차례씩 자녀의 독서를 지도했다고 한다. (유점숙,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출판사, 1994, 51쪽.)

41) 이해조, 『자유종』, 아세아문화사, 1974. 25WHr. 이해조는 ‘설현’을 통해 “네로부터 교육은 어머니에게 맞는 일에만오니 우리도 자식을 그런성력과 그런 방법으로 교육했스면 그 영향이 어더흐겠소 여러분 여자들 지금남자와 지금 여자를 조롱말고 이다음 남자와 이다음여자나 교육좀 잘흐여보옵시다”라고 역설한다.

들어 스스로의 모순을 은폐하듯이, 조선의 근대 주체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귀환한 여성들을 “남편의 교사요 고문관”⁴²⁾, “나라의 근본을 만드는 근본”⁴³⁾ 등으로 이상화한다. 일부일처제, 혹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내면화한 이 신성한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여성의 탄생, 비역사적인 국민의 출현을 목격하게 된다.

V. 맺음말

근대계몽기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조선의 계몽 기획자들이 여성을 국민으로 호출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가문’이 아닌, ‘가족’을 기반으로 근대적 국가를 상상한 계몽 주체들은 이 새로운 가족의 질서에 순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여성-국민’으로 승인한다. 사실상 전통적인 현모양처주의의 개작인 셈이다. 개화, 개명, 진보 등 근대계몽기의 화려한 구호들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가족의 새로운 중심이 된 가부장(家夫長)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부차적이고 기능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타자적 위치에 대한 기만적 호명이 국민이다. 근대계몽기 여성에 관한 담론이 대부분 혼인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⁴⁴⁾은 계몽 주체들이 기획한 여성-국민의 본질이 근대판 현모양처였음을 확인시킨다. 착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라는 요구를 배반하는 일체의 여성들은 음녀(淫女), 음부(淫婦)로 매도되며 국민의 범주로부터 배제된다. 이 비국민들의 각종 음행(淫行)을 전시하면서 조선의 새로운 가부장들은 열행(烈行)하는 여성-국민을 구성한다.

근대계몽기 신문이나 소설은 이러한 국민을 재현하는 데 기술적 수단

42) <논설>, 『독립신문』, 1898. 2. 1.

43) 유길준, 앞의 책, 333쪽.

44) 김경일, 앞의 책, 38쪽.

을 제공했다. 『매일신문』의 경우 ‘논설’란은 계몽 담론을 직접 전파하는 장치로, ‘잡보’란은 구체적 사건의 배치를 통해 계몽 담론을 간접 지원하는 기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특히 ‘잡보’란에 주목했다. 계몽 주체들은 이 ‘잡보’란을 계몽과 반계몽, 국민과 비국민을 선별하는 유용한 장치로 활용하면서, 반계몽·비국민에 대해서는 확실한 배제를 유도한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계몽의 기획은 이미 자기모순을 내장하고 있다. 비국민으로 배제하기 위해 ‘잡보’란에 배치한 술한 음녀들을 통해서 아내이자 어머니로 동화할 수 없는 여성의 다양한 욕망을 스스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가·국민이라는 거대서사로 포섭할 수 없는 이 음녀들의 존재는 근대라는 균질적인 시간을 분절하며 계몽을 균열하고 국민이라는 동질성을 훼손하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상존한다. 바로 그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의 산포(散布)를 확인하고, 다양한 여성의 정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 근대계몽기, 매일신문, 잡보, 국민화, 여성, 국가, 가족, 가부장, 음녀, 현모양처

참고문헌

- 『미일신문』, 『협성회회보』, 『독립신문』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 7, 63쪽.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대성, 『『미일신문』의 ‘사실’ 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잡보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7. 2, 3~6쪽.
박노자,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유점숙,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출판사, 1994.
이경하, 「대한제국 여인들의 신문 읽기와 독자투고」, 『여/성이론』통권 12호, 2005. 여름.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05. 2, 58~61쪽.
이해조, 『자유종』, 아세아문화사, 1974.
정진석, 『한국 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6.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02.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린 헌트 저,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Abstract>

The Nationalizing Process of Women in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And
The Imagination of Family - Nation
- Centering arund 『The Daily News』
(1898~1899)

Kim, Kyung-Yeon

The thesis studied the method that the enlightening planner called women as the nation during the modern enlightened times in Korea centering arund 『The Daily News((1898~1899)』(매일신문). The enlightened subjects mapped out the modern nation on the basis of family. They approved the good mother and housewife as the nation. Actually that is the transformation of premodern ideology of the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 women couldn't still free themselves from the secondary and functional standing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The discourse connected with women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was mostly about the married women. Therefore we confirm the fact that the truth of women - nation is the modern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 newspapers and new - novels in the modern enlightened times offered the effective means in order to represent the modern nation. The lead article of the early modern newspapers was utilized the contrivance that the enlightened subjects directly propagated the

modern discourse. The concrete events were stationed on the general article. The newspapers in early modern times propagated the modern values making of this kind of arrangement.

This study especially took notice of the general article in *The Daily News*. The enlightened subjects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excluded the opposite of the enlightened and modern women. However the prodigal women who couldn't included the nation disturbed enlightenment, obstructed the identity of the nation. We confirm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 and affirm the variety of women in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through the outside women of the nation.

Kew Words :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The Daily News*, nationalization, women, nation, family, master-husband of family, prodigal women, wise mother and good wife